朝鮮日報 一日夕刊

時評

荒刻煙職工會

朝鮮煙草會社에 對하야 荒刻煙職工會에서 ……

王兆銘一派 蔣氏와 絶對不相容

武漢軍隊의 旗幟益鮮明

(漢口卅日發) 汪兆銘, 張發奎兩氏는 二十九日漢口로부터 九江에 到着하야 三十日廬山에 向하며 孫科氏도 올터인데 汪氏一派는 絶對로 蔣과 相容치 못하야 武力으로써 蔣을 倒하려는 意思이며 張發奎氏의 第四軍長黃祺翔氏는 蔣氏討伐의 布告를 發하야 旗幟를 鮮明히 하엿더라

揚子江으로 南北의 境界삼고

張作霖은 北方軍事首領 蔣介石은 國民軍의 首領

南京政府의 六個條提議內容

(北京三十一日發) 安國軍側消息에 依하면 南京政府에서는 北京政府에 左의 軍要提議를 하엿다더라

一、津浦線方面의 兩軍은 即時停戰할것 二、揚子江을 南北의 守備境界로 할것 三、閻馮의 同盟을 破壞할것 四、兩軍은 各히 討赤할것 五、軍事가 終了되면 三民主義를 基礎삼고 新政府를 建設하고 各軍을 國民軍으로 改編할것 六、張作霖을 北方의 軍事首領, 蔣을 國民軍首領으로 認定할것

討赤協定은 成立

兩政府一致는 不容易

…… 軍事協定에 關한 意見을 …… 濟南에 赴하엿더라

正代表는 楊氏

(北京三十日發) 國務總理 …… 代表로서 派遣說이 ……

潘總理 濟南行

蔣氏意見聽取

(北京三十日發) 潘總理는 ……

七個所의 警察署襲擊

人力車夫死傷數十名

(漢口三十日發) …… 隊는 保安派의 援助 …… 同隊는 드듸어 數十名의 死傷者 …… 外닭에 中國人車夫 同盟罷業을 開始하 ……

孫軍徐州에 集中

南軍과 不遠에 衝突

…… 組織萬廳氏等의 軍은 山東에 向하야 다시 總攻하고 蔣介石氏도 浦口에 出하 …… 徐州前線에서 兩軍의 衝 …… 이더라

◇伊兵은 慓悍 伊太利兵은 …… 부터 勢力을 失하야 東洋 …… 는 것과 가튼 것이 업더니 …… 英國의 從軍으로 저우 中國 …… 하얏스나 그 數가 甚少한데 …… 且 悍 또 困難하야 그 보다 더 …… 腐敗한 것은 업더라

◇佛兵은 嚴肅 佛國兵은 日 …… 지 안흔데 元來佛蘭兵의 …… 知 못하나 憲兵이 嚴重 …… 하야 軍規가 比較的 嚴肅하 ……

馮孫態度如何

南北安協의 一大懸念

上海物價奔騰 稅制急變으로

(上海三十一日發) 國民政府 稅制에 急激한 變化를 加함 特히 關稅한 바 稅外닭에 奔騰하야 中流及貧民階級 窮迫하야 八月一日부터 施稅制에 對한 市民의 怨嗟는 達하엿다 그런데 新稅制의 左와 如히더라

…… 三制課稅 …… 五種課稅 …… 로 三年間 阿片賣買를 官하고 專賣局을 設함

南中國排日經過(上)

國產獎勵가 俄然勃興

動機는 出兵

今番全中國에 蔓延된 排日의 眞目的이 那邊에 在한지는 不明하나 發生한 直接原因은 日本의 山東出兵이다 即五月末에 日本이 北中國의 旣得權益 日本居留民의 保護를 稱하고 山東에 派兵하자 南方派는 即南派의 勢力이 北漸할 것을 阻止하고 北方派를 援助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南京國民政府當局은 日本政府에 對하야 出兵反對抗議를 하엿다 그런데 日本이 容易히 撤兵치 안흘 것을 알자 民衆運動으로써 이것을 解決하려고 計劃하고 總政治部, 國民黨上海市黨部等을 指導者로써 하야 上海總商會上海總工會 組織統一委員會 學生聯合會其他各團體를 糾合하야 「上海各團體日本出兵反對大會委員會」를 組織하고 市民大會를 擧行

하야 全國에 徹을 飛하는 等모든 宣傳을 開始하엿다 如斯하야 六月九日 第四回委員會에서 드되어 「日本이 기어히 撤兵치 안흘것 가트면 經濟絶交를 斷行할」 이라고 決議하엿다

排日決議의 內容

出兵反對大會委員會는 具體的排日方法으로서 六月十二日왼에 와가튼 決議를 하엿더라

(一)國民的으로 日本商品을 不買 (二)商店의 日貨不賣買 (三)稅關은 日貨를 取扱치 안흘 (四)日本人紡績工場日本汽船 그他日本人關係事業從業員의 同盟罷業 (五)證商交易所의 格付中에서 日本商品을 除外함 (六)日本汽船에 不乘 (七)日本人銀行에 預金치 안흠 (八)新聞紙는 日本商品의 廣告를 揭載치 안흠 (九)日本에 對하야 原料品을 不賣함

이와 가티 決議後 그 實行運動에 着手하엿스나 一般商民의 熱은 그리 熱烈치 안흠으로 十八日에는 日本商品取扱者는 發見하는대로 逮捕하야 排日權에 投하야 市中에 돌어 노코 다시 二十一日에는 日貨取扱者에 對하야 「反革命條例」를 依하야 處刑할 것이라고 決議하엿섯다

排日實行의 効果

他方上海工會組織統一委員會는 各工會에서 五名式會員을 選拔하야 排日宣傳隊日本商品調査隊를 組織하엿다 이와 가티 形勢는 더욱 惡化하야 드되어 滬寧滬杭甬鐵道는 二十一日부터 一切日本品의 輸送을 拒絶하는 同時에 各船會社運送業者도 取扱을 停止하엿다 그 結果上海 海味公會(海產商組合)는 六月二十三日 日貨海產物商組合인 上海味公會와 가티 去來停止를 實行하고 上海紗布交易所를 爲始하야 上海物品證券交易所等도 日本商品의 上場의 中止를 決

紗布交易所의 排日

하엿더라 그中 가장 注意할 것은 紗布交易所의 日本綿絲布上場禁止問題이다 六月二十三日日貨受渡中止로 爲先立會가 不能에 陷한 紗布交易所는 翌日左의 決議下에 立會를 再開하엿다 (一)七月一日부터의 新規賣買는 絶히 中國絲로 함 (二)但旣成取組에 對하야는 日本絲의 受取를 許함 (三)二十四日以後는 別로히 場을 세워 解合商內만을 行함 (四)右의 外는 七月一日까지 新規注文을 拒絶하고 極力建玉의 整理를 할 但上海市場은 日本紡績을 除外하고는 去來할 수가 거의 不可能함으로 모처럼 決議한 것도 다시 立會가 不能하게 되어 이제는 復歸할 수 가 업다 紗布交易所問題에 關連하야 上海의 企業交易所도 面의 買賣를 禁하려는 風說이 傳한다

三國軍縮會議後報

最後總會도 各種事情上無期延期

(제네바三十一日發) 八月一日最後의 總會를 開할터이든바 諸種의 事情으로 延期가 되엇는데 何日開催할가는 一日朝에 決定하게 되리라더라

會議는 縷命尙存

目下形勢는 依然危急

(제네바三十日發) 三國會議의 緊張的氣分은 徐徐히 除去되는 中인데 當局者는 一日全權會議가 開催되드라도 缺裂될 憂慮는 업스리라고 述한다 米國側은 依然華盛頓政府로부터의 訓電을 기다리고 英全權「쉬실」卿도 會議는 아직 餘望이 잇는데 그는 華盛頓訓電如何에 在하다고 言한다 會議의 形勢가 依然危急할 際는 結局條約의 東縛을 緩和하려는 政治的條項을 提議한 米國側의 「다레스」案이 가장 良策이라고 하더라

米國聲明書

卅一日發表

(제네바三十一日發) 米國側은 卅一日午後에 그 處地를 闡明하려고 聲明書를 發할터인바 一定한 ……

米政治的條項

成文發表

(제네바三十一日發) 一日의 全權會議延期의 件을 決定함에 對하야 米國委員은 三國新條約中에 挿入할 同委員이 提議한 政治的條項의 成文을 發表하엿더라 各締約國은 他의 締約國이 巡洋艦의 合計噸數를 利用한 外닭에 그 安全이 脅威될 때에는 數個月의 豫告로써 他의 締約國과의 會議를 召集함에 依하야 當面의 形勢를 匡正할 方法에 出할것을 許하고 또 相互的協定에 依하야 此를 匡正할 수 가 잇는 與否를 確間하야 萬若 此가 不能하면 三國條約은 各締約國이 一個年의 豫告에 依하야 廢棄할 수 잇다 고 한 것이다

…… 總噸數의 範圍內에서 八吋備砲巡洋艦을 自由로 建造하야 그 外닭에 他의 二國에게 脅威를 與할 時는 新會議를 開할 條項을 兩者提議하엿스나 容認되지 못하엿다는 旨도 公表하고 英國이 此를 承諾할 것 가트면 條約이 잇다는 旨를 暗示할터이다 英國은 無論이 것을 拒絶할터이더라

米大統領은 空艦擴張贊成

(라피드시차나三十日發) 米國大統領「쿠릿치」氏는 「제네바」會議의 決裂로 매우 失望하엿다 그 理由는 氏의 自論인 財政緊縮方針에 對한 大打擊이 잇는 外닭인바 今後의 方針에 對하야는 大統領은 아직 아모것도 發表치 안햇스나 氏의 近親者의 觀測에 依하면 大統領은 軍艦建造보다 寧히 航空艦의 擴張에 贊成할터이더라

…… 한바 米國全權이 英全權을 訪問한 것은 英國側의 讓步할 意志가 잇고 업는 것을 探知하랴 한 것이나 英國側은 最早 一步도 讓步치 안흘 것을 三十一日에도 聲明하얏스며 또 米國側도 讓步할 意志는 全然히 업는 模樣이더라

米代表延期要求

(제네바卅一日發) 三十一日正午米全權「깁손」氏는 「쫀손」少將과 共히 英全權「브릿치만」氏를 訪問하고 米大統領「쿠릿치」氏는 지금 避暑地에 잇는 外닭에 本國과의 交涉에 日時가 걸인다는 理由로 會議의 延期를 申請하엿다 이 外닭에 一日의 全權會議는 數日間延期하기로 決하엿더라

南京政府의 財政的危機臨迫

對外增稅가 그 救濟策

(上海三十一日發) 南京政府가 財政難의 救濟策으로 九月一日부터 實施하는 普通品七分五厘奢侈品一割五分乃至二割七分五厘 增徵의 輸入關稅增行條例及出廠條例는 稅率의 引上뿐아니라 治外法權及條約을 無視하야 日貨排斥보다 도 重大한 影響을 外國商人並工場經營者에 끼치는 것인바 南京政府現在의 財政狀態를 보건대 六月二十二日부터 南京에 財政會議가 召集되어 江蘇, 浙江, 安徽, 福建, 廣東의 各代表가 合同할 때에 總司令蔣介石氏의 報告演說에 依하면 每月의 軍政各費는 千四百萬元인데 北伐의 進展, 勢力範圍의 擴大로 費用도 增加되어 每月의 軍費約二千萬元을 要하니 이러한 巨額軍의 政務費를 現實히 支出한다면 本年七月부터 十二月까지 一億二千萬元을 要하야 結局六千萬元의 歲入이 不足하다 此不足額은 七月一日부터 蘇, 浙兩省의 鹽稅全部를 擔保로 한 鹽餘債券六千萬元을 發行하야 塡補하게 되엇다 以上과 如한 當面의 財政難을 打開코저 條約無視의 擧動을 斷行한 것이더라

天津에 駐在한 五國軍評判記

中國新聞揭載

(天津聯合通信) 目下當地에는 日, 英, 米, 佛, 伊等五國의 軍隊가 多數駐屯하야 各本國人의 保護에 當하얏는데 當地에서 發行하는 中國新聞에 左와 如한 各國軍隊의 評判記를 揭載하얏더라

◇日本兵은 穩和 在津軍隊中에 日兵과 米兵이 最多數인데 日兵의 規律은 整然하고 態度도 穩和하다 彼等은 每日市街에 헤어저서 租界內의 公園或川邊에 잇는 海光寺(日本兵營附近)等地에 納涼

第二華府會議

一九二九年에 召集

(東京電) 第二次華府會議는 一千九百三十一年秋期에 開할터인바 米國側은 春期로 하려는 希望이 잇고 締約國은 建造計劃上二個年假量猶豫를 둠이 適當하다 고 생각함으로 期間을 당기어 一千九百二十九年에 開할지도 未知이더라

…… 잇스나 事實은 楊宇霆氏로 確定되어 잇고 南京代表가 來京하는 대로 北京에서 交涉을 開始할터인데 會議의 內容은 軍事問題에 限함으로 秘密히 協定하고 發表치 안흘 터이라더라

鐵筆寫眞

볼일다보앗군

一帆風을 駕하야(下)

元山에서 安民世

一元山 二馬山 三木浦 이러케 朝鮮海港의 名勝을 꼽는다 한다 宮島 嚴島 및 天橋等 日本三景과 비기려 하는 者의 일이다 日本에 잇서서 天橋를 못보앗고 朝鮮에서는 木浦를 못보앗다 宮島 嚴島는 鮮明纖麗함이 아릿다운 女性의 美이오 恍惚하게 사람을 반하게 하는 맛은 잇지마는 元山의 雄麗暢遠한 것과는 달르다 木浦의 景光은 多島海의 秀雅齒繼한 山海美를 압헤 노코 風景이 非凡함을 짐작하지마는 勿論 元山과는 그 趣味가 다를 것이다 만일 舞鶴山의 雄健한 瓦峯을 主軸으로 左右에 돌아들은 蘭林이 드부룩한 山麓을 겹겹이 노코 쪽 가튼 바다 물을 고요히 담고 잇는 馬山의 景趣는 白銀盤裡 一靑螺를 음겨 리게 하는 豬島의 技巧함 과 한가지 南朝鮮의 으뜸 가는 消會이 될 것이나 元山은 또 이것 보담 나흐다 山海의 美를 아울는

大都市의 景色을 말하자면 結局元山으로서 그 第一指를 굽힐 것이다 하물며 明沙十里 지맥 으로 피고 지는 海棠花의 纖麗와 雄大를 아울러 가진 滄海를 眼界로 한 精明한 景色은 다른 곳으로서 닥흘 수 업는 바잇슴에랴

海山의 景色이 雄大崇麗함으로서 世界에 일컷는 者 잇스니 「나포리」오 「데지네로」가 그것이다 吾人의 발자욱이 아즉 漢字國의 領域을 버서나지 못하엿스니 世界的의 山水를 論하는 것은 僭越한 짓이지만 …… 植物이 繁茂하게 들어선 …… 山이 四圍에 둘러서고 …… 港口를 ……

거니와 뭇山이 重疊하야 凉風을 막고 무더운 氣候가 설여서 黃熱病의 跋扈함을 보게 하는 것은 또 天然이 주는 恨事이라 한다 이제 元山은 北緯三十九度十分의 地點에 잇서 비록 冬季에 酷寒의 날이 업슴도 아니나 海洋의 氣候는 저절로 緩和됨이 잇스니 가장 健康에 알마진 世界的의 勝地가 되는 것이다 이는 元山의 자랑이요 또 朝鮮의 한 자랑이 될 것이다

群山萬壑이 赴荊州 王昭君이 나서잇고…… 春香이 打令을 시작하는 南原山川을 贊하려고 이 가티 廣大는 …… 를 내는 것이다 崇麗明媚한 山水間에 써로 美人이 鍾出하니 뒤으로 翠巒압흐로 皓波 明沙十里의 해사한 돌 갓을 노코서 도 일 족 絶世美人 天下의 男性을 살우 잡는 者 업섯는가? 이 江山 이 風景 美人이 업섯든 것도 恨事이오 英雄巨人이 낫섯든가? 德源의 故地 太祖以前의 …… 祖를 나 혀다 하니 그 寂寞치 안타 할 者이 나? 發展하려는 大元山의 將來를 압헤 두고 그 全局의 運命을 집

머지고나 설 組織的인 힘이 잇는가? 各處에서 모여들은 都市인 元山의 人士들은 集合의 元山兒의 愛鄕的同類意識부터 薄弱하지 아니 한가? 오늘날의 社會的 諸情勢는 朝鮮人으로 모 든 階級을 떠나서의 團結을 要求하여 말지 안하나니 元山의 人士들이 一層時代의 刺戟하는 바에 눗거워서 이 變動되려는 局面에 善處하기를 못내 祝願한다 이 藥의 扁舟를 바람에 맛기어 울 수를 한 同志들의 歡喜하는 光景을 보면서 元山의 古今과 未來를 생각하면 더욱히 全元山의 人士들 이 同舟하는 感激으로서 多難한 새 局面에 處하기를 빌고 십흐다 港內의 집히가 十八尺으로 二十四尺에 達하야 三千噸以上의 배가 들어다 키는 故障이 업다 하거니와 곳곳이 淡水의 새암이 솟아서 차기가 어름 갓다 고 한다 寒潮의 亂脈이 灣內에서 해들 어짐이라고 하것지만 은 한 곳의 물은 싱거웁기 江물 갓다 하니 興味잇는 일이다 南으로 滿下里의

「스탄다드」石油「탕크」에는 넘는 해 발이 이미 다 것첫는데 우리배 는 長德섬으로 건너질린 「콩크리트」의 防波堤 미창에 다히고 一行 은 하얏게 酸化된 조개껍질의 무 더이를 밟으면서 바위 돌로 올러 서서 다시 險峯 구경으로 올러간다 마침 불다 란 險峯에는 附屬한 光彩가 번적이기 시작하는데 아 이 업은 婦女와 그의 남편인 險峯 직이는 외로히 잇는 비 들이 한 쌍 모양으로 무등 情熱해 보인다 개펄에 내려서 조개 껍질을 줍 거 가 勸進하는 대로 夕飯을 對한다 밥이 잇고 술이 잇고 갓삽 이 잇서 一盃酒 新炒飯에 淸興과 野味가 아울러 足하다 夕飯을 맛 치고 防波堤에 누으니 旁人 자리 하늘 장막에 浩大한 氣色이 동기 어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으스름 한 달 구름은 머죽게 비취 는 드문 별이 암작암작 萬古의 秘 密을 속살거리는 듯 빨는 바람 보 드러운 물결이 싫그머니 바위에 부드저서 철석 철석 또 철석 落寞하든 나의 心琴을 연하여 건 드려준다

總會는 四日

日本은 傍觀

(제네바三十一日) 「제네바」軍縮會議總會는 四日木曜日에 開會하기로 하엿다 英米는 이가티 하야 調停者의 出現을 기다리고 잇스나 日本側은 決定될 希望이 업다 하야 依然傍觀的態度를 取하더라

英米依然相持

一步도 少不讓

(제네바三十一日發) 三十一日夕刻石井全權은 「깁손」「쫀손」全權을 訪問한다 음에 「브릿치만」全權을 訪問 ……

芳澤公使歸任

二日延期

(東京電) 芳澤公使는 一日歸任할 豫定을 變更하고 二日午前九時三十分東京發神戶로부터 上海로 直行할터이더라

英國을 가면

齋藤氏一行 日程變更

(제네바卅一日發) 齋藤全權一行은 八月二十日 「말세유」에서 出發하는 郵船箱崎丸에 船室을 豫約하엿는데 英國을 訪問한다 면 日程을 變更하야 英國에서 乘船할터이라더라

八面鋒

○ 軍縮不成功의 責任은, 너도 업다, 나도 업다, 結局子누에게 잇슬가

○ 齋藤氏는, 英國을 訪問할 듯하다고, 百萬圓以上의 巨資를 들이어 淸風은 잘 하는 군

○ 蔣介石은, 張作霖더러, 長江을 境界삼고, 南北이 守備하자 고, 劉項의 鴻溝의 劃界하든, 舊演劇이 나오나

○ 武漢派의 排斥이, 猛烈한 反動으로, 그 무슨 協定이 成立된 들 그 壽命이 몃칠 살고

○ 專賣局의 煙草販賣額이, 每年에 四十二億八千餘萬圓이라고 이러한 巨額을, 燒存性시키는 것이, 무슨 意味일가

生阿片을購入後 精製하야滿洲輸出

경성시내에서도상류계급중독자에게 긔탄업시밀매하든대규모아편밀매단 兩署에檢擧된密賣團

최근에이르러서대종로서와서대문서의대활동으로인하야대규모(大規模)의『모루히네』급아편밀매단(阿片密賣團)이속속검거되엇다함은루차보도한바와갓거니와 수일전에도역시서대문서에 톄포된중국인으로 아편밀매단의 수괴인 시내태평통이뎡목이십팔번디(太平通二丁目)에서표면으로 양복뎜을 경영하는리보풍(李寶豐)(四二)이라는자는목하서대문서에서엄중한취조를밧는중으로취조에딸아실로놀랄만한아편밀매(阿片密賣)에대한범죄사실(犯罪事實)이 속속폭로될터이며 그자들의 음험한범죄사실을 탐문하건대 전긔리보풍이라는자는시외고양군연희면(高陽郡延禧面)일대에약삼십여명의 관허앵속재배자(官許罌粟栽培者)가잇슴을 긔화로그들을매수하야 전후다액의 생아편(生阿片)을사다가는 다시그것을 정제(精製)하야다가 만주방면(滿洲方面)에 밀수출(密輸出)하는일방 다른 한편으로는 경성(京城)과개성(開城)기타에 비밀한 아편흡연소(阿片吸煙所)를설치하야 비교뎍(比較的)상류계급(上流階級)에 속하는남녀아편중독자들에게 아편을 밀매한것이라는데 동사건은 취됴에딸아 점차로확대된다는바 시내서대문서에서는 계속하야 련루자톄포에 전력을경주하는중이라더라

買收된栽培者 勿驚三十餘人!

모다관허앵속재배자들

별항보도한 아편밀매단(阿片密賣團)은 시외고양군연희면(高陽郡延禧面)일대에 흣터서잇는 약삼십여명의 관허앵속재배자(官許罌粟栽培者)를중심으로하야 그와가튼대규모의 아편밀매의범죄가 생긴것임으로 소관서대문서에서는 이번긔회에 아편밀매단을일망타진하는동시에 전긔관허앵속 재배자들의 취톄를 더한층엄중히 하리라더라

極度恐慌中인 千餘中毒者

자신귀의진정이잇슨후 이번에는중독자가공황 原因은魔窟勦滅

지난칠월중순경에 대규모의『모루히네』밀매단이 종로서에일망타진된이래로 시내에 산재한수백명 자신귀(刺身鬼)들은 모히를 엇지못하야 거리로방황타가 마츰내는 경찰에호소를 하게되어 십수명의자신귀가 종로서에쇄도하엿다함은 긔보와 갓거니와 금번서대문서에 검거된아편밀매단(阿片密賣團)은시내에서 매매되는 아편의 근원디(根源地)이만큼시내에 흣허저잇는천여명아편중독자(阿片中毒者)들은자신귀(刺身鬼)와가티또한일대공황(恐慌)을밧는중이라더라

迷宮에잠긴 拳銃去處

종로서의두통

지난번에원산서(元山署)에검거된 권총사건(拳銃事件)이 잇슨후그사건에 관련한 권총한자루가 시내에반입되어잇다는 소문으로 시내종로서에서는 지난칠월하순경에 시내모단톄 간부인모씨를 검속하야다가 권총의행방을 알고저엄중한취됴를 하얏스나종시 그단서를 엇지못하고 검속하얏든 모씨는 혐의가풀리어 이삼일후에 석방하리라는데 현금 종로서에서는 동권총한자루는 역시시내에잇슬것이라 하야 목하 계속하야 그권총의행방을엄탐중이라더라

酷暑! 酷暑! 炎熱로又慘死

지난이십팔일 오후세시쯤되어 대구동성뎡 삼뎡목 팔십륙번디(大邱東城町)압헤서 나희륙십여세나 되어보이는 남자한명이 무참히도 죽어버리엇다는바 그원인은 영양부족(營養不足)이심한중에 백도(百度)나넘는 혹독한더위에 견듸지못하야 그와가티 죽엇다는데 주소성명은 아즉 알수업스며 시톄는서미(西尾)공의가 검시한후에 대구부에인도하야매장케하엿다더라(대구)

會社態度强硬

중역회에서협의한결과 최초의대안을지지키로 大東印工罷業事件

대동인쇄주식회사(大東印刷株式會社)의 맹파사건(盟罷事件)에대하야 경성인쇄직공조합(京城印刷職工組合)과 로총(勞總)측에서는 그동안 직공측과회사측과의 타협안(妥協案)을 작성하야 회사당국에 뎨출하엿섯든바 대동인쇄회사(大東印刷會社)당국에서는 전긔타협안을 가지고 삼십일날 오후에다시중역회의(重役會議)를 개최하엿다는데 그결과 회사당국에서 최초에 성명(聲明)한바와가티 여전히 하로한시간식의 시간연장(時間延長)과 무임로동(無賃勞動)안을지지(支持)하기로결정이되엿슴으로 이로써동맹파업사건은여전히 해결의서광이 막연하게 되엇다는바 일일오전까지 회사측의요구를 승인하고 복업(復業)한직공은 전부삼십이명 에달하엿다더라

自働車顚覆

승객두명중상

지난이십팔일 오전 열한시경에 재등자동차회사 (齋藤自働車會社)소유경북이백삼호가 승객을 실고 안동(安東)을 출발하야대구(大邱)로향 하든중 칠곡군가산면(漆谷郡架山面)압길을지날때에 돌연히자동차 압바퀴고무가터지며 자동차는 전복되어 타고잇든 손님중 녀자두명이중상을 당하엿슴으로 즉시대구의원으로다려다 가응급수당을가한결과 생명에는별로히 관계가업스나 원악중상임으로 상당한시일이 걸릴터이라더라(대구)

倡義團公判 十一日에開廷

재판소의사무형편으로 무긔연긔 한창의단공판

작년여름에 경성시내에잇는 각관아(官衙)와 중추은행(中樞銀行)을폭파(爆破)하고 요로의대관(要路大官)을 ○○코자 하다가 거사(擧事)전에 발각톄포되어 예심에서 지리한취됴를 마치고 공판으로 회부(廻付)하야 지난삼십일로 공판긔일을 지정하얏다가 또한재판소의 사정으로무긔연긔 (無期延期)를 하얏든 창의군단사건(倡義軍團事件)의 김농선(金濃先)외 여덜명에대한 대정팔년제령뎨칠호위반(大正八年制令第七號違反)총포화약류취톄규측위반(銃砲火藥取締規則違反)급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에대한공판은 오는십일일아츰에 이르러 경성디방법원 뎨삼호법뎡에서 협(脇)재판장의심리와 중야(中野)검사의립회하에개정하기로결정 하얏다더라

拳銃隊는杳然 警官依然徒勞

○○단은종적조차아득 경관대는수준히헛활동

평남덕천(平南德川)에○○단원다섯명이 잠입하야 이래수백의경관들로하여금 요사이가튼 염텬에 헛룸만켜게한다함은 이미루루히 보도한바와갓거니와 도처에뎐광(電光)가티나타낫다귀화(鬼火)가티 살아지는 그들은 요즘에칠간은 도모지 이러타는 소식이업는바 벌서그들은 덕천경내를떠나 딴곳으로가지나 안햇는지 알수업는데 수색하는경관대들은 죽은말(馬)이마구(馬廐)직히듯이 여전히경계만하는중이라더라(덕천)

軍資不應한다고 主人을結縛亂打

결국랑처서군자금으로 삼십원가지고종적감취 甲山拳銃隊詳報

함경남도 갑산군동인면 련흥리(咸南甲山郡同仁面連興里)연치구(延致九)의집과련풍리 (連豐里)김정우(金正祐)의집에 지난 이십구일 밤새벽한시경에 권총을가진 ○○단 여섯명이 몰입하얏다함은 이미보도한바 어니와 이제그내용을 자세히 탐문하건대 그날밤에그들은 주인을각각결박하야 노로군자금을 내이라고강청 하다가응치안흠에 그들은 분개하야 주인을 무수히란타하고 나종에는자긔네가 방으로쪼처들어가 수색하야 현금삼십원을빼아서 가지고종적을감추어 버렷다는바 이급보를접한 동인주재소 (同仁駐在所)에서는갑산 경찰서원과 련합하야계속수사중이나 그들의종적은 차질바이업다 더라(갑산)

◇自轉車衝突 지난이십팔일오후뎡시 삼십분에 창녕자동차(昌寧自働車)경북일백팔십팔호를운전수김명구(金明具)(二四)가운전하고 대구의원 (大邱醫院)압흘 지날때에 동뎡일뎡목(東町一丁目)개천양복뎜고인김복진 (芥川洋服店雇人 金福鎭)(一五)이가 자뎐거(自轉車)를 타고나오다가 전긔자동차와 충돌하야 자뎐거는 산산이부서젓스며 아이는 인사불성(人事不省)이되엿슴으로 대구의원(大邱醫院)으로다려다가 응급수당을가한결과 생명에는 별다른관계가 업다고(대구)

激昂한『苦力』群 警察에大擧暴動

署員總出로拔劍鎭撫 류치장을깨치고자야료해

지난칠월 이십륙일 오전열시경에 웅긔경찰서 (雄基警察署)에는 륙십여명의 중국 고력군 (中國苦力群)들이쇄도(殺到)하야 일대폭동(暴動)을 일으켜 일시는형세가 매우험악하엿슴으로 서장(署長)이하 서원들의 총출동으로 혹은발검 (拔劍)까지하여가지고 간신히진압하야 열한시경에 겨우해산시켯는데 그들이 그와가티폭동한 원인을됴사하여보면 그들은전부 이곳에서 목재(木材)를 운반하는 목도노동자(木道勞働者)들인바지난칠월칠일에 그들의 수령(首領)인 심구전(沈久全)이란 자가 그들의임금(賃金)일천 구십륙원을 고주(雇主)에게서 횡령(橫領)하여가지고 도주한것을 웅긔서에서 수색한결과 지난칠월십일에신아산(新阿山)박면에서톄포하여다가 이래엄중한 취됴를계속하엿스나 가지고떠난 현금천원은 로중에서 분실(紛失)하엿다칭탁하고 종래자백치 안흠으로그돈천원은 차저내지 못하고 드듸어 재판소에 넘기어징역일년의판결언도를 바더지난 이십륙일 아츰에 청진(淸津)형무소로압송하게되엇는데 이소식을 들은 전긔로동자들은 경찰서에서엄중히 고문(拷問)치 안엇슴으로 그가돈천원을 감추고도내어노치안흔 것이매 그가일년간 복역(服役)만하고 나오게되면 그돈천원은 영영히 삼킬수잇슬 것이니 그의형벌이 넘우경(輕)할뿐아니라 자긔들이 피땀을흘려로동한돈을 그에게 무단히먹히고말수 업스며 그범인을자긔들에게 인도하여주면 자긔들이 처치하겟다고 서장에게 교섭하엿스나 서장은 이미판결까지바더복역케된이상 엇지할수 업슬뿐아니라 범인을인민에게 인도는절대로 할수가업는것 이라고 순순히 설유하엿스나 륙십여명 그들은 그저범인을 내어노라고 경찰서 문으로막밀려들어 류치장을깨트리려는 형세 이잇든것을서원의 총출동으로 겨우방어하여간신히 해산시킨것 이라는바경찰은 지금그의 수모자 (首謀者) 검거에 애를쓰나 그들은 모다일치행동을 취함으로 수모자검거가매우곤난하다 더라

담배한개問題로 數十名作黨暴行

노름군수십명이모혀서 복송아장사를구타햇다

삼십일일오후두시반경에시내서소문뎡(西小門町)에사는안정호(安正鎬)(三一)는복송아행상인 도행상인(桃行商人)이시내 태평통대한문(太平通大漢門)압헤서복송아를팔고 잇든중환일도박 (丸一賭博)을 상습으로 하는 한창우(韓昌祐)라는 자가와서담배 한개를달라함으로권긔안은담배가 업서못주겟다고 하야 말을주고 밧다가마츰내는큰싸홈이되어권긔한창우라는자는 십수명의 동류를다리고와서 함부로 난타하야복송아장사에게중상을시키어 인사불성에 싸지게한후 어듸로 갓는지자최를감추엇든중본뎡서원의 활동으로 가해자한창우외 두명은 목하본뎡서에 엄중한 취됴를밧는중이며 피해자안정호는서소문뎡 (西小門町) 김탁원(金鐸遠)의원에서응급수당중인바 매우 중상이라더라

계집따리고 罰金廿圓受刑

마진안해가남편고소

본적을진위군오성면 숙성리(振威郡梧城面宿城里)에두고 현금시내청엽뎡(靑葉町)일뎡목일백십번디김긔동(金基東)(三一)은상해죄(傷害罪)로 지난칠월삼십일에 경성디방법원에서 벌금이십원의 판결을밧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야 공소공판을일일오전십시에 경성복심법원 뎨삼호법뎡에서 말광(末廣)재판장의심리와 하촌(河村)검사의 립회로 개정하얏는데 검사는일심과가튼 구형(求刑)을하얏는데 그의범죄내용을 들으면 그는지난오월십오일오후다섯시경에 자긔처박성녀(朴姓女)(三)와말다툼을하다가 박성녀를 따리어이주간의 부상을시켯다고 박성녀가 고소를한것이라더라

◇少婦飮毒 시내 통의동 (通義洞)사십사번디박두병 (朴斗炳)의처오순이(吳順伊)(二六)는삼십일오후일곱시십분경에 자긔집에서 양잿물을 먹고자살코자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즉시 부근 경복의원 (景福醫院)에 수용시키고응급수당을하얏스나 생명이 위독하다는바 원인은식어머니되는류씨(柳氏)와사이가조치못하야언쟁한끄테분을못참아 그리한것이라고

落井慘死

시외동대문밧독도면릉리(纛島面陵里) 이백이번디 왕순봉(王順奉)의 세재아들 한식(漢植)(四)은 이십구일오후세시경 그곳 우물부근에서유희중 그만우물속에 빠저죽은것을 삼십일날에 발견하얏는바 시톄는그실부가차저갓다고

自働車衝突

경북상주(尙州)에 영업소를둔 경북자동차주식회사(慶北自働車株式會社)소유자동차 일백오십오호(一五五號)차가 지난삼십일일 오후두시경에 당디서뎡리(西町里)사거리(四街里)에서 남뎡리황성필(黃聖弼)의고용인 홍명옥(洪明玉)(三)의탄자뎐차와충돌되어 생명이 위독하게되어 방금 당디삼성의원(三省醫院)에 입원치료중이라하며 전긔운뎐수강성구(姜聖九)는경찰서에 인치취됴중이라는데 원래시내자동차로써 전속력을 내지못하게하엿슴에도 불구하고 나히어린운뎐수들은 항상 주의치안코 전속력을내어 운뎐을함으로 비난이만타더라

安東에染病

경북안동 일대(安東郡一帶)에는 일긔불순한이때에 이르러 각종전염병이 점점만연되어 심히불안한상태인데 병명은 성홍열 (猩紅熱)적리(赤痢)학질(瘧疾) 등으로 원인에대하야 모의사는말하되 익지아니한 과물과 생수에바친 탁주(濁酒)등을 함부로식용하는관계라고(안동)

◇米穀法實施 = 오늘부터는 년래의현안이든『메트르』법을실시하게되엇다 백미(白米)의『키로그람』계가실시되는터인데 경성부에서일일오전십시반부터 길촌(吉村)내무과장과 취도(鷲島)권업과장 소창(小倉)시장계주임등이하 권업계원이출동하야 시내의각경찰서를두루방문하고 압으로실시할것을의뢰하엿스며 기타공설시장(公設市場)과 련매장들을두루시찰한후 선전포ㅡ스터ㅡ를 각경찰서에배부하얏더라(사진은본부한미곡뎐)

◇米穀換算法 = 一『키로그람』約七合▲一『키로』四百『그람』約一升▲七『키로그람』約五升▲十四『키로그람』約一斗

夜闇에숨은 歡樂境鳥瞰 (1)

現實의『地獄篇』! 물에주린斷末魔

담을격하야나타나는극단의대조 악박골쾌락장은무엇을말하는가

밤서울을차저서 S生

디지(地誌)상으로보아 북위(北緯)삼십칠도삼십사분과동경(東經)일백이십륙도오십구분에자리를삽고이『포인트』삼사륙방리(方里)라는넓지못한면적(面積)으로천연칙일만사천방리(方里)의『캐피탈』이되어잇는 소위대경성(大京城)일백삼십일개뎡동(町洞)에서간조(乾燥)무미(無味)한살림을하야가는 삼십삼만륙천삼백오십사인의시민들은한난계(寒暖計)의 비등뎜(沸騰點)을초과한지이미오래인요사이 가티혹독한더위에마비(麻痺)된대로마비된신경(神經)과 생활경쟁에미란(靡爛)할대로 미란한정신을무엇으로위안(慰安)하고또진작(振作)하는가? 생활이간조한그들에게는그야말로 중용(中庸)으로환락경 (歡樂境)이잇슬것이며신경이마비된그들에게는극도의자극성(刺戟性)을 띄운기호물(嗜好物)이잇서야할것이니 이러한반면에는필요한소비품 (消費品) 도물론잇는터이나 필요치아니한 랑비품(浪費品)도또한만흘것이며딸아그들에게 유익한영향도만히 끼치는동시에 그만한폐해들잇슬것도사실이다 그럼으로그들의환락경 (歡樂境)을조감 (鳥瞰) 하고해부(解剖)하야써도회인의생활심리(生活心理)를연구하고심리상병뎍현상 (病的現象)을관찰하여보는것도흥미잇는일일것이다

盆 속古戰場도 여름철엔大繁昌

신식동명으로 의주통(義州通)이오 녜일홈으로 경긔감영(京畿監營)압네거리에서 북으로 약오륙뎡 가량을걸어가면 보기만하여도 우울(憂鬱)한 긔분이 떠도는 이생의디옥 (地獄)인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의붉은벽돌담 검푸른 야암(夜暗)에 잠기어 그반면만을 보기실케내여노흔곳에 독사의눈가티 반작이는뎐등빗이 담넘어로 광채를쏘아 폐허(廢墟)가튼 넓은뜰을비최이고잇스니 밝은낫에 보아도 쓸쓸한곳의 밤경은 더설명하지 안는다도 누구나다 짐작하는것이니 이곳에 무슨환락경(歡樂境)이 잇스리라 고는 생각지아니 할것이다 그러나일마다모순(矛盾)되지만흥을골라하는사람들은 이와가티 긔분이괴악한장소에도 환락경을 열어노흔것이다 서대문형무소의 벽돌담을오른편으로 끼고양장(羊腸)가티 굽은 언덕길을서편으로 돌아 곰작우니속을 들어가면 소규모의 분디(盆地)가 잇스니 이것이 느진가을부터 일른봄외지의 사이에는 쓸쓸하기녯전장(戰場)과가트나 여름한철은 주야를불문하고 사람의, 커자들일우는소위『악박골』이다

人生의享樂場? 餓鬼의受刑臺?

선긔자는 위선이곳부터 착수하리라는 생각으로 삼십일일밤만뢰(萬籟)가고요한 자정 써쯤하야외로운 그림자를동모 삼아이곳을탐방하얏다 넓지못한골작길을 다들어가『악박골』 어구에 다다라서 눈을들어살펴보니 북통가튼 분디에서복작이는 흰옷입은사람의 떼가희미한 뎐등마테 이리구불저리 구불하는것과 적은물터에 머리를 악을쓰고 덤비는 물에주린아귀(餓鬼)들의 흔드는 것, 언덕위숲풀밋과 돌층계(石層階)의구비에서 『물종자』들이 마에부터고 애무진 고개를번거롭게하는 물악신이가 마티『단테』는신곡(神曲)의디옥편(地獄篇)에왼갓아귀들의넉(魂)이수형(受刑)하는 장면(場面)과 가트니 인생의향락장(享樂場)이디옥의수형대(受刑臺)와 거리가얼마되는가를 생각한다 아……인생의간알픈우숨은악마(惡魔)의침통(沈痛)한고소(苦笑)보다 그얼마나 본새보기실흔것이냐?

산사람을보고서 일어나는爭鬪劇

그러나범(虎)을잡으라면굴(穴)에들어가지 아니할수 업는것이다『일금십오전야』의싼맛에탓든 『四二六호』의『우거지』가튼자동차를 나려나도한복 씨우자는듯이 네활개를치고 몰려로 걸어가니 손님을쇠으는 안내업자(案內業者)들이 괴자를가운데두고서로 올라고 쟁탈전(爭奪戰)을 한다 속담에 떡줄놈은생각도 아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격으로 맨주먹으로그림자를 벗삼아나온괴자를 가장『동』이나 하나 물은줄아는그들의극뎍(劇的)행동도 우숩기짝이업거니와 결국악다구니 세인놈이 상대자를물리치고 손님을 빼아서가는것을보니 우승렬패(優勝劣敗)의 패 인심한뎡리(定理)가이곳에서까지 실행되는것이한심하다 그러나이와가티손님하나만보면 몃놈의 안내업자가 한테몰려대가리가터지도록 싸워 빼아서가면 그들은 장차엇더한방침으로 손님의돈을빼아서가려는지(계속)

金堤에短刀强盜

이십구일 오전두시경에 김제군 월촌면 신왕리(金堤郡月村面新…) … 다는데 이급보를접한 소관김제 …

惑世團體同榮社員

… 소위종교단체 숭신인조합(崇神人組合)이니 신리종교(神理宗敎)이니 … 구일평양경찰서고등계(高等係)에서는 그중에도일부 세력이잇다 … 고 지난칠월상순에 평남 지부장이되어 다수한외교원(外 … 연계 굿과동을하는 … 못한